

LG 'G7 씽큐', ABCD로 북미 시장 공략

〈오디오·배터리·카메라·디스플레이〉

유럽·아 등 글로벌 시장 순차 진출
美·캐나다 주요 이동사 통해 시판
'구글 프로젝트 파이'도 최초 출시



LG전자는 스마트폰 'LG G7 씽큐(ThinQ)'로 북미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LG전자 모델이 LG G7 씽큐를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LG전자는 스마트폰 'LG G7 씽큐(ThinQ)'로 북미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LG전자는 1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즌, T모바일, 스프린트, US셀룰러 등과 캐나다 벨, 로저스, 텔러스 등 북미 주요 이동통신사를 통해 G7 씽큐를 출시했다.

또, G7 씽큐는 베스트바이 등 전자제품 판매점은 물론, LG전자 프리미엄폰 최초로 구글 프로젝트 파이를 통해서도 출시된다. 프로젝트 파이는 구글이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다. G7 씽큐의 편리함에 대한 현지 언론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LG G7 씽큐는 ▲야외에서도 밝고 선명한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 ▲별

도 스피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운드가 풍부한 '붐박스 스피커' ▲스스로 사물을 인식해 최적의 화질을 추천해 주는 'AI 카메라' ▲디스플레이 소비전력을 최대 30% 낮추고 저전력 알고리즘을 적용해 넉넉한 '배터리 사용시간' 등 고객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ABCD(오디오, 배터리, 카메라, 디스플레이) 성능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주요 IT매체 GSM아레나는 "LG의 신제품인 LG G7 씽큐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응답자의 60%는 디스플레이를 핵심 기능으로 꼽았고 이는 실제 사용 시 아주 유용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IT전문매체 나인 투 파이브

구글은 "만약 당신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려고 한다면 LG가 내놓은 기본기가 탄탄한 LG G7 씽큐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 스마트폰의 또 다른 백미인 붐박스 스피커는 출시된 제품 중 가장 큰 출력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북미를 시작으로 유럽, CIS,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 G7 씽큐를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 단말사업부장 하정욱 전무는 "모든 고객들이 늘 쓰고 있는 핵심기능들을 대폭 향상시킨 LG G7 씽큐의 가치는 북미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고객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세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구형준 현대글로벌비스 물류사업본부장(오른쪽)과 펀드 지원 첫 번째 수혜자인 화물차 운전기사 김광규 씨가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향남물류센터에서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동반성장 확산 위한 상생협력 펀드 운영

현대글로벌비스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펀드 운영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생협력 펀드는 현대글로벌비스가 화물차 운전기사와 중소물류 협력사의 자금흐름을 돕기 위해 200억원 규모로 마련한 상생 기금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6월부터 펀드 운영을 개시하며 첫 수혜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향남물류센터에서 전달식을 실시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총 200억원을 은행에 예치,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물류인의 대출이자 중 20% 안팎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원한다.

수혜자는 펀드 지원 신청자 중 현대글로벌비스 내부 심의위원회와 대출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연간 50여명의 운전기사와 10여개 협력사에 펀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해 9월 협력사 및 물류산업 종사자들과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상생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부터 실시하는 상생협력 펀드 200억원을 비롯해 안전문화 전파, 물류인력 양성, 중소물류기업 경영 컨설팅에 필요한 기금 총 500억원을 조성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상생협력 펀드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추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LG 올레드TV, 美·英서 잇달아 '만점 행진'

英 매체 "존재 자체만으로도 훌륭"
LG "프리미엄 TV시장 지속 선도"

LG전자는 2018년형 올레드 TV에 대해 최근 글로벌 IT매체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영국 IT전문매체 AV포럼은 LG 올레드 TV에 10점 만점을 부여했다. 이 매체는 올레드 TV에 대해 "아주 멋진 TV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영국 리뷰 전문매체 '트러스티드 리뷰' 역시 올레드 TV에 5점 만점을 부여했다. 이 매체는 올레드 TV에 대해 "LG 전자가 2018년 올레드 TV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지금까지 테스트해온 것 중 가장 완벽한 TV 중 하나"라고 호평했다.

영국 AV 전문매체 '왓하이파이'도 올레드 TV에 5점 만점을 부여하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 훌륭한 TV"라고 호평했다.

미국 USA투데이의 리뷰 전문매체



미국 베스트바이에 매장에서 직원이 올레드 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리뷰드닷컴'은 "화질은 올레드 TV를 구매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라며 올레드 TV는 "현재 구매 가능한 2018년 최고의 TV 중 하나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 '씨넷'도 "LG 올레드 TV가 2018년 상반기 최고의 TV 자리를 놓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

며 "지금까지 테스트해온 제품 중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TV"라고 극찬했다.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는 "인공지능 화질엔진 '알파'를 적용, 더욱 완벽한 화질을 제공하는 2018년형 올레드 TV로 프리미엄 시장을 지속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세운 기자

르노삼성 'SM3', 1000만원대 '파격 할인'

르노삼성자동차가 준중형 세단 SM3(사진)를 9년 전 가격에 판매한다. 경차와 소형차 가격인 1000만원대다.

르노삼성은 SM3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을 75만~115만원 내린다고 3일 밝혔다. 2002년 데뷔해 현재까지 40만대 판매된 SM3는 출시 이후 국내 준중형 시장을 대표하는 패밀리카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09년 출시했던 2세대 모델은 당시 중형 세단에 버금가는 넓은 실내공간과 고급스러운 외관 등 우수한 상품성으로 주목받았다. 최상위 트림인 RE는 기존 2040만원에서 75만원 내린 1965만원, LE트림은 115만원 할인된 1795만원, SE 트림은 85만원 낮아진



1665만원, 기본형인 PE트림은 100만원 인하한 1470만원으로 판매된다.

이는 9년 전 2세대 출시 당시와 같은 수준의 가격이다. 국내 경차 및 소형차

최상위 트림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산 경차 대표주자인 기아 모닝은 950만~1544만원에 판매된다.

/양성운 기자



현대자동차가 대형트럭 대상으로 'H-비즈니스 케어'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대형트럭 수리 지연시 최대 150만원 금전 보상

'H-비즈니스 케어' 프로그램 실시

현대자동차가 대형트럭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수리 지연시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 입고된 차량의 수리가 늦어질 경우, 지연 보상을 해주는 'H-비즈니스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5월 1일 이후 출고된 현대차 대형트럭 2종(뉴파워트럭, 엑시언트)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출고 후 1년 내 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 상용 '블루핸즈'에 입고된 차량의 수리 기간을 산정해 기간 내 완료할 경우, 기간이 초과될 경우 경과된 일자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

한편 현대차는 상용차 고객들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H-비즈니스 케어를 비롯해 '현대 상용차 멤버십', '현대 트럭·버스 서비스 앱', '현대 상용 고객센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시스템(주)이 2일 용인연구소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들 600여명과 함께한 '2018 가족초청행사'를 진행했다. /한화시스템(주)

한화시스템

임직원 가족 행사 성료

한화시스템(주)이 2일 용인연구소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들 600여명과 함께한 '2018 가족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행사를 위해 한화시스템은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만들기 체험,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야외 오락실 등 다채로운 놀거리와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했다.

한화시스템은 2002년부터 매년 1회씩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가족들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주관으로 가족초청 행사를 마련해왔다.

행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해마다 높아지면서 올해는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여하게 됐다.

/구세운 기자